



# 북한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백신지원 전망

이승열·이승현·김주경

북한은 2022년 5월 12일 정치국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발생을 공개하고, '최대비상 방역체계'를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인식하면서, 장기적으로 남북간 보건협력을 남북대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 1 들어가며

김정은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2022년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 19'(COVID-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인정하고,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sup>1)</sup>

북한은 2020년 1월 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되자, 1월 22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차단 하였으며, 1월 28일에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 하였고, 1월 31일에는 북중간 모든 인적 물적 교류를 차단하는 국경폐쇄 조치를 단행하였다.<sup>2)</sup>

그 결과 북한 보건성은 최근 발표 이전까지 코로나 19 관련 확진자가 "0명"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도 이같이 보고했다.<sup>3)</sup>

1) 「로동신문」, 2022.5.13.

2) 이승열, 「북한의 '코로나(COVID)-19' 대응 실태 분석: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4호, 2021. p.125.

3) 정은혜, "전쟁 같은 고비라면서, 北 '백신 도움' 꺼리는 기이한 이유," 『중앙일보』, 2021.8.11., <https://news.joins.com/article/24125446?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검색일: 2022.5.18.).

그러나 2022년 4월 말부터 코로나 의심징후인 발열환자가 나타났고,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sup>4)</sup> 이에 백신접종과 치료제가 전무한 북한의 의료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확진자 폭증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지난 2년간 북한 당국의 방역 정책과 최근 코로나19 확산 현황, 그리고 국제 사회의 백신지원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백신지원 전망과 우리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북한의 '코로나19' 현황과 정책

### (1)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경과

북한 당국은 전염병 발생시 「전염병예방법」 제2장 제13조에 따라 보건성을 중심으로 방역 관련 실무 총괄을 담당하는 '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하고, 동법 제4장제40조에 따라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전염 원의 철저한 격리와 차단을 중시해 왔다.

4) 「로동신문」, 2022.5.13.



2020년 1월 중국 우한 지방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1월 26일 「로동신문」을 통해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자”라는 제목의 보건성 담화를 발표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사태 발생 소식을 알렸다.<sup>5)</sup> 이후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북중간 국경폐쇄 조치를 차례로 발표하였다.

2000년 이후 발생한 다른 전염병 대응사례<sup>6)</sup>와 달리,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주요 특징은 김 위원장이 직접 방역의 전면에서 나선 것이다.<sup>7)</sup> 김 위원장은 2020년 2월 28일 ‘정치국확대회의’를 시작하며 ‘중앙비상방역지휘부’(명칭: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구성과 전염 통로의 완전 봉쇄, 그리고 이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 복종을 지시했다.<sup>8)</sup> 김 위원장은 2020년 1월 ‘국가비상방역체계’가 발동된 이후, 이듬해 12월까지 총 15차례(’20년 9차례, ’21년 6차례)의 노동당 정치국·정무국 회의 및 당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과 관련한 지시를 직접 내렸다. ’20-’21년 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코로나 19 대책 관련 노동당 회의는 다음과 같다.

[표 1] ‘코로나19’ 관련 노동당 회의(’20-’21)

날짜	회의	내용
’20. 2.28	정치국확대	중앙 방역 지휘부 구성 지시
4.11	정치국	코로나19 관련 내각 공동결정서
7.2	정치국확대	방역성과 공고화 지시
7.25	정치국비상확대	‘최대비상방역체계’ 선포
8.5	정무국	봉쇄된 개성에 특별지원 지시
8.13	정치국	국가적인 방역체계를 위한 기구설립
8.25	정치국확대 정무국	국가비상방역태세 점검 및 개선

5) 「조선중앙통신」, 2022.5.23.

6) 북한은 2000년 이후 세계적 전염병 사스(2003), 신종인플루엔자(2009), 에볼라(2014), 메르스(2015) 등을 맞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경험이 있음.

7) 태영호, “북한 코로나19사태 진단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언,” 「북한 COVID-19 대유행 사태 관련 국회세미나 자료」, 2022.5.25. p.22.

8) 「로동신문」, 2020.1.26.

9.29	정치국	국가적인 비상방역 강력 시행
11.15	정치국확대	완벽한 봉쇄 장벽 구축
’21. 1.12	제8차 당대회	방역의 안정적 정세 시종일관 유지
2.11	2차 전원회의	방역성과 공고화 지시
6.18	3차 전원회의	방역사업의 장기화 대비, 경제와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 보장
6.29	정치국확대	비상방역체계를 저해한 간부 책임
9.2	정치국 확대	방역대책과 인민생활부분 강조
12.1	정치국 확대	국가경제의 안정적 관리 강조

※ 자료: ’20-’21년 「로동신문」의 보도 내용 분석

[표 1]에서 보듯, 김 위원장의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지시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에는 감염원의 “철저한 봉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2020년 7월 개성시로 탈북자 한 사람이 재입국하자, 즉시 개성시를 봉쇄하고 방역의 수준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였다.<sup>9)</sup>

하지만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의 장기화로 북한의 경제사정이 점차 악화되자,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전”에 대비한 국가 및 인민경제 부분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여름 수해로 인한 식량 생산 감소가 예상되자, 김 위원장은 “대유행병 사태가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되기 어렵다”며, 식량 사정을 고려한 방역정책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sup>10)</sup>

## (2)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현황

북한 「로동신문」은 6월 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를 인용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한 발열환자가 6월 1일 18시 기준 총 383만5,420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70명이라고 밝혔다.<sup>11)</sup>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나타난 주요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공식

9) 「로동신문」, 2020.7.26.

10) 「로동신문」, 2020.6.19.

11) 「로동신문」, 2022.6.2. 이중 95.7%에 해당하는 366만 9,950 여명이 완쾌되었고, 4.3%에 해당하는 16만 5,39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음.

발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발열환자 기준이라는 점이다. 북한 보건성이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한 내용(발열환자, 완치자, 사망자) 중 발열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서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이 제시한 발열환자를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sup>12)</sup>

둘째, 코로나19 관련 확산이 여타 국가들과 달리 빠르게 진정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초 확진자가 발표된 12일부터 13일 만에 발열환자가 3백만 명을 넘었으나, 초기 3-4일 동안 평균 20-30만 명에 달하던 발열환자의 수가 최근(6월 1일 기준)에는 9만 6,610여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치명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0.002%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부족으로 인해 확진자 수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북한 당국이 공식발표한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도 북한의 발표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sup>13)</sup>

### 3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 경과 및 전망

#### (1) 국제기구를 통한 백신 지원 경과

북한은 2022년 5월 8일 이전까지 세계보건기구에 확진자 “0”명으로 보고해왔으며, 백신 접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북한은 백신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보다 공정한 배분을 위해 고안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Facility, 이하 ‘코백스’)의

‘백신국제지원’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거절한 바 있다.

2021년 3월 코백스가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백신 199만 2천 회분을 배정하고 5월까지 170만 4천 회분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북한 당국은 백신 수용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sup>14)</sup> 7월에는 AZ 백신 473만 4천 회분이 배정되었다. 이후 8월에는 중국 국영제약사 시노백의 백신 297만 회분이 북한에 배정되었다.<sup>15)</sup>

이에 북한 보건성은 국제적으로 백신 공급이 제한되고 일부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코백스가 북한에 배정한 백신 297만 회분을 코로나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재배정해도 된다는 뜻을 유엔아동기금(UNICEF)에 전달하였다.<sup>16)</sup>

국제사회의 백신 공급에 대한 북한의 거절 사유로 세 가지가 제시된 바 있다. 하나는 화이자사나 모더나사가 개발한 ‘COVID-19’ 백신의 경우 초저온유통·보관 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는데 전력난을 비롯한 내부여건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백신을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므로 거절한 것이라고 추측한다.<sup>17)</sup>

다른 하나는 중국산 백신과 AZ백신,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의 경우 초저온 냉장유통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북한이 AZ 백신 등에 대해서 부작용을 우려하여(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12) 이설, “북, WHO에 발열환자, 사망자, 수 등 코로나19 상황 보고,” 「뉴스1」, 2022.5.25., <https://www.news1.kr/articles/?4691055> (검색일: 2022.5.26.).

13) 홍제성, “통일부 北 코로나 상황 ‘호전 추이’라 단정은 어려워,” 「연합뉴스」, 2022.5.19.,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9076000504?input=1195m> (검색일: 2022.5.25.).

14) 안소영, “WHO, 북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관련 보건성과 접촉 중,” 「VOA」, 2022.5.13., <https://www.voakorea.com/a/6568974.html> (검색일: 2022.5.24.).

15) 12월에 AZ 백신 128만8천8백 회분을 추가함에 따라 2021년에만 총 811만5천6백 회분이 배정되었다.

16) Manas Mishra, “North Korea rejects offer of nearly 3 million Sinovac COVID-19 shots,” REUTERS, September 1, 2021., <http://www.reuters.com/world/asia-pacific/north-korea-turns-down-sinovac-covid-19-vaccine-doses-wsj-2021-09-01/> (검색일: 2022.5.24.).

17) Soyoung Ahn “N. Korea Rejects COVID Vaccines, Saying Hard-hit Nations Have Greater Need”, VOA, September 01, 2021., <https://www.voanews.com/> (검색일: 2022.5.24.).

방식 백신을 선호한다고 알려짐) 지원을 거절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sup>18)</sup>. 마지막으로 ‘주체’의 관점에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백신을 지원받는 것이 자신들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up>19)</sup>

## (2) 백신 및 방역물품 지원 전망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2020. 3.11.)한지 2년 2개월 만에 북한 당국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인정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공개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은 북한에서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감염병 대응에 전폭적인 지원을 재확인하였다.<sup>20)</sup>

그러나 2022년 5월 24일 현재 UNICEF 웹사이트의 ‘코로나19 백신 마켓 안내판’에는 북한에 배정된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0”이다.<sup>21)</sup> 올 초에도 코백스가 154만8백회분의 백신을 새로 배정하였으나 북한이 수용의사를 표시하지 않자 할당량을 축소하였다가, 결국 전량을 다른 나라에 재배정하였다.

한편 2021년 11월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는 UNICEF가 요청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대한 1년 간의 제재 면제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코로나19 백신 냉동유통 및 보관 장비 등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sup>22)</sup>

18) Ibid.

19) 김수형, “싸드 기지 두고 한국과 큰 충돌: 에스퍼 전 장관의 비밀 폭로,” 『SBS 뉴스』, 2022.5.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67897&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67897&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검색일: 2022.5.31.).

20) UN News, “WHO ‘concerned’ over COVID-19 outbreak in DPR Korea, reiterates full support,” May 16, 2022., <https://news.un.org/en/story/2022/05/1118352> (검색일: 2022.5.24.).

21) UNICEF, 「COVID-19 Vaccine Market Dashboard」, <https://www.unicef.org/supply/covid-19-vaccine-market-dashboard> (검색일: 2022.5.24.).

## 4 나가며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발열환자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물자에 대한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과의 방역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제안을 남북연락사무소 간 전통문을 통해 보냈으나, 북한은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 계획과 가능성을 밝히고 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북한은 연일 공식보도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발열환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치명률이 낮은 상황 등 방역의 성공적 사례를 보도하며, 오히려 방역 성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러한 보도와 달리, 북한은 국경봉쇄의 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었으며, 대북 경제 제재에 더하여 식량 생산 감소, 위생적인 식수 부족 등의 요인이 더해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인도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이에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밝힘으로써 장기적으로 남북간 보건협력이 남북 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22) 박형주, “유니세프 ‘코로나 대응 물품’ 대북지원 제재 면제 승인,” 『VOA』, 2021.12.9., <https://www.voakorea.com/a/6344728.html> (검색일: 2022.5.24.).

